

## 오세아나와 블랑팡, 멕시코만 암초 보호를 위한 탐험을 이끈다

2020년 10월, 블랑팡은 특별한 위치 파트너로서 해양 보존에 전념하는 대규모 국제 조직인 오세아나(Oceana)와의 연합을 발표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8월 9일 두 조직은 프로젝트 알라크라네스(Project Alacranes) 원정을 런칭하며 풍성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멕시코만 두 지역의 심해를 탐험한다. 원정대는 15일간 아레스피페 알라크라네스 국립공원(Arrecife Alacranes, 영어로 스콜피온 리프(Scorpion Reef))과 바호스 델 노르테(Bajos del Norte)로 떠나 생태 다양성 상태를 기술하고, 또 해변가에서 멀리 떨어져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산호초의 비밀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블랑팡은 1953년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위치인 피프티 패덤즈를 런칭한 이래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파인위치메이킹 브랜드 블랑팡은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를 통해 20번의 과학 탐사 활동을 공동 후원하며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 규모를 4백만 km<sup>2</sup> 이상 확대한 것은 물론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수중 사진 전시와 출판물을 선보였다.

오세아나와 수년 간 이어지는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블랑팡은 멕시코에서 이뤄지는 오세아나의 첫 탐험을 후원한다. 멕시코 바다에서 사용된 적이 거의 없는 최첨단 기술이 동원될 예정이다. 8월 9일에서 23일 사이에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과학자 10명이 그 지역을 탐험하며 환경 관련 DNA 분석 및 모자이크 사진 모델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호초의 3D 지도를 만들어 그곳에 서식하거나 이 지역을 이동 경로 일부로 사용하는 종들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피쉬 헌터 프로(Fish Hunter PRO)"라는 이름의 음파를 사용하여 어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업적 측면에서 주목하는 물고기 개체수 조사를 위한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우리의 목표는 해양 보호 구역의 현 상태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중요한 생태계의 미래를 보호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오세아나 멕시코 부사장 레나타 테라자스(Renata Terrazas)가 말했다. 그녀는 멕시코가 탁월한 생태 다양성을 갖춘 17개 국가 중 하나이며, 유카탄 반도(Yucatan Peninsula) 북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스콜피온 리프는 멕시코만 남쪽에 위치한 가장 큰 암초라고 설명했다. 그곳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번식하는 다양한 종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업이 중요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곳의 연구와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젝트 알라크라네스 원정대가 탐험하게 될 지역에는 최소 136 종의 어류, 34 종의 산호류, 다양한 돌고래, 분홍 거미 고둥(queen conch)이나 그루퍼(grouper) 등의 상업적으로 귀중한 해양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스콜피온 리프는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염, 불법 남획, 잠재적 파괴를 야기하는 관광 등 각종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테라자스가 말한다. "바호스 델 노르테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멕시코 해양 서식지의 회복과 보존은 특히 현지 어부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암초를 제대로 보호해야 미래 세대가 그것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자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세아나의 해비타트 캠페인 디렉터 미구엘 리바스(Miguel Rivas)가 말했다. 캐리비안 크라켄(Caribbean Kraken)에 오른 프로젝트 알라크라네스 원정대는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인 바호스 델 노르테 암초로 우선 떠나게 된다. 그곳의 풍성한 생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돌아온 원정대는 푸에르토 프로그레소(Puerto Progreso)에서 재정비하고 34 시간 후 알라크라네스 암초에 도달할 것이다.

블랑팡의 대표이자 CEO 인 마크 A. 하이예크는 말했다. "블랑팡은 최초의 모던 다이빙 위치인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인 1950 년대 초부터 바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는 블랑팡 오션 커밋먼트를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다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3 개 측면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번째는 사람들에게 바다가 무엇을 지니고 있고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보여주는 아름다움(beauty)의 측면입니다. 두번째는 관심이 필요한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지식(knowledge)적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호(protection)의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프로젝트 알라크라네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멕시코의 생태 다양성, 현지 개체수, 궁극적으로 세계에 변화를 가져다줄 탐험과 과학 연구를 이끌어갈 오세아나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 초반의 일부 영상 자료는 오세아나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다. 관심 있는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OceanaMexico, 인스타그램에서 @oceanamexico 를 통해 이 과학 원정을 가까이에서 팔로우할 수 있다.